

서울 소상공인 10명 중 9명 “하반기 매출도 줄어들 것”

새희망자금 추석 전 받으려면 오늘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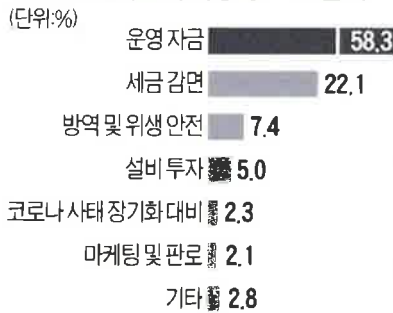
서울지역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9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27일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1021명을 대상으로 벌인 ‘코로나19 위기 대응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감소했다’는 응답은 89.2%였다. ‘증가했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매출이 줄어든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경기 하강 영향’을 꼽은 응답자가 40.1%로 가장 많았다. ‘사업 아이템과 경영 방식이 코로나에 부적합’(31.8%), ‘소비자의 대면접촉 기피’(17.6%)가 뒤를 이었다. 올 하반기 매출 전망에 대해선 ‘감소할 것’이라는 대답이 87.4%, ‘증가할 것’이라는 대답은 1.1%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유용한 지원책은 자금 지원이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제도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사람이 10명 가운데 7명(69.1%)으로 나타난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한 지원 제도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56.4%)이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48.8%),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26.6%)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3분의 1은 가장 도움이 된 지원 제도로 ‘자영업자 생존자금’(33.1%)을 꼽았다.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운영자금’(58.3%)을 지목했다. 이어 ‘세금 감면’(22.1%), ‘방역·위생 안전’(7.4%)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새희망자금을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서기열 기자 phios@hankyung.com

서울 소상공인 10명 중 9명 “하반기 매출 절망적”

서울 소재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상반기 매출이 감소했으며, 하반기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27일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 1,021명을 대상으로 경영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는 응답이 89.2%, 하반기 매출이 감소할 거라고 전망한 응답이 87.4%에 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69%가 “정부·지자체 지원 활용” “신청했지만 지원대상 탈락” 52%

의 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9.1%였다.

활용한 제도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이 56.4%(이하 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생존자금’(48.8%),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26.6%)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신청했으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응답이 52.4%에 달했다.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분야로는 운영자금이 58.3%로 가장 많았고, 세금감면(22.1%), 방역·위생 안전(7.4%)이 뒤를 이었다.

중기업중앙회는 “경기 부진의 구조화·고착화에 따른 어려움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급격한 사업 환경 변화에 적응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의 열악한 경영 상황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다양한 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매출액 1억원 미만 소상공인들의 피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들은 지원 제도 활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서울경제

2020년 09월 28일 월요일 A16면 산업

서울 소상공인 85% “하반기 매출 상반기보다↓”

중기중앙회 1,021곳 설문조사

서울 내 소기업·소상공인 10명 중 9명 가까이 올해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1,021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올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 대비 줄어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85.5%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서도 매출이 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87.4%에 달했다.

올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도 작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은 89.2%였다. 이유에 대해서는 '전반적 경기하강 영향'을 꼽은 비율이 40.1%로 가장 많았다.

/양종근기자 ggm11@sedaily.com

아주경제

2020년 09월 28일 월요일
012면 산업

서울 소상공인 89% 매출 한파 상반기... 31% 지원 제도 활용 못해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서울지역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올해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30%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27일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 소재 소상공인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위기대응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9.2%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보다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 비중은 1.3%에 불과했다. 매출 감소 이유는 △전반적 경기하강 영향(40.1%) △사업 아이템과 경영방식이 코로나에 부적합(31.8%) △소비자의 대면 접촉 기피(17.6%) 등이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도 소상공인의 87.4%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지자체의 지원제도를 활용한 소상공인은 69.1%, 활용한 적이 없는 소상공인은 30.9%로 나타났다.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52.4%)은 '신청했으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응답했다. △지원제도 내용을 알지 못함(26.5%) △지원제도 내용을 알지 못함(21.1%) 등이 뒤를 이었다. 현상철 기자

전자신문

2020년 09월 28일 월요일 010면 종합

소상공인 69.1% “코로나 극복 지원제도 활용 경험”

중기중앙회, 서울 소상공인 실태조사 가장 도움된 제도로 '생존자금' 꼽아

서울 소재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9명은 올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 소재 소상공인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2%가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이유로는 '전반적 경기하강 영향'(40.1%), '사업 아이템과 경영방식이 코로나에 부적합'(31.8%) 등이 꼽혔다.

응답자 69.1%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를 활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56.4%), 자영업자 생존자금(48.8%) 등이 이용 빈도가 높았다.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신청했으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52.4%), 지원제도 내용은 알지만 미활용(26.5%) 등이 꼽혔다.

활용한 지원제도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제도로는 자영업자 생존자금(33.1%), 서울시 재난긴

급 생활비 지원(26.6%),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14.1%) 등이 꼽혔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전반적으로 매출액 1억원 미만 소상공인들의 피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지원제도 활용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서울 소상공인 87% “하반기에도 어렵다”

**‘매출 증가’ 전망은 1.1% 불과
하반기 매출 감소 예상치 4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지역 경기가 급격히 침체했다. 이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서울시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매출이 감소했으며, 하반기에도 회복은 요원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 소재 소상공인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위기대응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올해 상반기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89.2% 수준이었다. 늘었다는 단답변은 1.3%에 불과했다. 매출이 줄었다고 답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 감소율은 47.4%로 집계됐다.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이유로는 ‘전반적 경기하강 영향’(40.1%), ‘사업 아이템과 경영방식이 코로나에 부적

**서울 소상공인 하반기 대비
하반기 매출 예상**
(단위: %)



합’(31.8%), ‘소비자의 대면 접촉 기피’(17.6%) 등이 꼽혔다. 특히 다른 업종과는 달리 ‘교육 서비스업’ 분야에서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이유로 소비자 및 거래처의 대면접촉 기피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뽑았다.

대부분이 올해 하반기에도 매출 회복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전년 동기 대비 올해 하반기 매출 전망은 ‘감소’가 87.4%, ‘증가’는 1.1%로 나타나면서다. 매출액 감소 예상치는 평균 48.4%로 상반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기업이 10곳 중 8곳을 넘었다. 상반기 대비 하반기 매출 예상을 물은 결과, ‘감소(많이 감소 63.4%, 조금 감소 22.1%)’할 것이라는 응답이 85.5%로 가장 많았다. 또한 ‘동일 수준’의 응답은 12.7%, ‘증가’의 응답은 1.8%로 각각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도를 활용한 경험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69.1%)이 ‘있다’고 응답했다. 활용 제도로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56.4%), ‘자영업자 생존자금’(48.8%),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26.6%) 등이 꼽혔다.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전반적으로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들의 피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지원제도 활용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브릿지경제

서울 소상공인 10명 중 9명 “하반기도 매출 감소”

중기중앙회, 경영 실태 조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하반기에도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소재 소상공인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위기대응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 87.4%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하반기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1.1%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올해 상반기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89.2%로, 매출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반적 경기하강 영향’(40.1%), ‘사업 아이템과 경영방식이 코로나에 부적합’(31.8%), ‘소비자의 대면 접촉 기피’(17.6%)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지원제도를 활용한 경험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69.1%)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없다’는 30.9%로 조사됐다.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전반적으로 매출액 1억원 미만의 소상공인들의 피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지원제도 활용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이슈이슈데이

2020년 09월 28일 월요일 021면 산업

소상공인 90% “하반기도 매출 감소할 것”

중기중앙회 서울지역 1021명 조사 상반기 실적도 경기하강으로 악화 피해지원 분야 운영자금·감세 혜택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상반기에 매출이 줄었고 하반기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서울 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 소재 소상공인 1021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군이 나타났다. 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한 올해 상반기 매출 감소 응답은 89.2%, 증가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이유로는 ‘전반적 경기하강 영향(40.1%)’, ‘사업 아이템과 경영방식’이 코로나에 부적합(31.8%)’, ‘소비자의 대면 접촉 기피(17.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하반기 매출 전망은 ‘감소’가 87.4%, ‘증가’는 1.1%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지원제도를 활용한 경험에

대해서는 69.1%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없다’는 30.9%로 조사됐다. 활용한 지원제도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56.4%)’, ‘지역업체 생존자금(48.8%)’,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26.6%)’ 등의 순이었다.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신청했으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52.4%)’, ‘지원제도 내용은 알지만 미 활용(26.5%)’, ‘지원제도 내용을 알지 못함(21.1%)’ 순으로 응답했다. 활용한 지원제도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제도로는 ‘지역업체 생존자금(33.1%)’,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 지원(26.6%)’,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4.1%)’ 등의 순으로 꼽았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설비 이상(68.3%)’이 ‘운영자금’을, 그 다음으로 ‘세금감면(22.1%)’, ‘방역·위생 안전(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극화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경기부진의 구조화·고착화된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한 지원이 없는 것은 단적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오세은 기자 news1@



2020년 09월 28일 월요일 012면 종합

서울 소상공인 10곳 중 9곳 상·하반기 모두 ‘매출 감소’

중기중앙회·소기업소상공인 연합회 89.2% 상반기 매출 하락 하반기 하락 예상도 90% 육박 운영비·채감면 등 추가지원 기대

서울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10곳 중 9곳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었다. 하반기 역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영업영역 마찰로 기존 아이템과 사업 방식으로 이를 견뎌내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 102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소상공인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해 27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2%가 상반기 매출이 떨어졌다고 답했다. 증가했다는 답변은 고작 1.3%였다.

매출이 줄어든 이유는 ‘국가·전반적인 경기하강 영향’이 40.1%로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상황’이 사업 아이템·경영방식에 부적합하다는 답변도 31.8%였다.

상반기에 매출이 늘었다고 밝힌 곳들은 ‘친구·가족·친척’(36.4%)이나 ‘사업 친구·이웃’ 도입 또는 경영방식 조정(27.3%) 등을 통해 돌파를 모색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반기 매출에 대해선 응답자의 87.4%가 ‘역시 하락’을 예상했다. 특히 ‘고용 서비스’와 ‘음식점’ 등의 업종이



서울 중로구 철문역 거리 한 실내포차에 영업 중로 안내문이 붙어있다.

상반기로 맞물렸다.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 등의 ‘취약 전망’ 답변이 더 많았다. 매출이 늘어난 곳이란 예로는 1.1%에 그쳐 상반기 매출이 증가했다는 답변보다도 오히려 적었다.

상반기 대비 하반기 매출 예상을 묻는 질문에는 ‘매출 감소’(63.4%)와 ‘조금 감소’(22.1%) 등 감소가 전체의 85.5%로 절대적이었다.

상반기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대비한다면 ‘다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경우가 10.7%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이렇듯 마포구에서 감소할 것이라 답변이 두드러졌다. 매출 수준이 ‘갈등’이란 대답은 12.7%, ‘증가’(2.0·‘소미’)는 1.8%였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지원제도 중에서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56.4%)과 ‘지역업체 생존자금’(48.8%)을 가장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은 기자

매일일보

2020년 09월 28일 월요일 009면 산업



서울 중로구 철문의 거리 한 실내포차에 영업 중로 안내문이 붙어있다.

하반기도 소상공인 절규 이어진다

중기중앙회 조사... 운영자금·세금감면 지원책 니즈 커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연일 이어지는 상황이다.

27일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의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소재 소상공인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위기 대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실태 조사’ 결과, 89.2%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해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증가는 1.3%에 불과했다.

상반기 매출 감소 영향 1위는 ‘전반적 경기하강 영향(40.1%)’이었으며, ‘사업 아이템과 경영방식’이 코로나에 부적합(31.8%)’, ‘소비자의 대면 접촉 기피(17.6%)’ 등이 뒤따랐다.

올해 하반기에 대한 전망도 암울했다.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것이라는 응답은 87.4%에 달했다.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정부·지자체의 지원제도를 이용한 응답자는 69.1%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56.4%)과 ‘지역업체 생존자금’(48.8%)을 가장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은 기자 news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26.6%)’ 등이다.

활용한 지원제도 중 가장 도움이 된 제도는 ‘지역업체 생존자금(33.1%)’이었다. 이어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 지원(26.6%)’,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14.1%)’ 순이었다.

반면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신청했으나 지원대상에서 제외(52.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지원제도 내용은 알지만 미 활용(26.5%)’, ‘지원제도 내용을 알지 못함(21.1%)’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운영자금(68.3%)’이 1위를 차지했다. ‘세금감면(22.1%)’, ‘방역·위생 안전(7.4%)’ 순으로 이어졌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부진의 구조화·고착화된 여부와 함께 환경 변화에 적응이 불가능한 사업주에겐 대면거래에 따른 금격화한 소상공인의 열악한 경영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파악된다. /오세은 기자 news1@